

허위·과장정보 피해 가맹점주에 손배소 지원 ‘배상 판결’ 이끌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소송지원제도 구제 사례
“中企 법률조력 서비스 확대”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

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가스공,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장관상’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희망온’ 등
최근 3년간 사회공헌 최고등급 달성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가운데)이 지난 25일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장학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충남 아산 지역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AI 위험성 커져… 방역관리 강화해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 방문

정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성이 예년에 비해 크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각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식용란 선별포장업소) 및 곡교천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 시연도 지켜봤다.

송 장관은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

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남도의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 장관은 “충남지역은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고,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천안 용정·가송 2개소에서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사출입 시 강화할 야생조류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먹거리 신뢰 위한 ‘식품안전리더’ 발족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54명 선정

농협경제지주가 ‘식품안전리더’를 발족하고 전국 매장 내 식품안전 자율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식품안전리더에는 우수 농축협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5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관내 농축협 판매장의 식품안전 자율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 24일 대전에 열린 발대식에서는 ▲식약처 농산물 안전관리정책 동향 ▲경제지주 식품안전 지원사업 소개 ▲현장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전문 담당자 매칭 및 팀빌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농축협 식품안전리더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 안전정책과, 식품안전솔루션 위탁업체 세스코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내·외부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식품안전 리스크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식품안전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식품안전리더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신뢰받는 농협경제지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대응훈련

기후부·국정원·소방서 합동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력용량 8MW(메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을 수용하는 핵심 기반 설비다. 전력설비 감시제어와 대국민 서비스 등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모든 ICT 자원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

장·처리·관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나주 소방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지하 축전지실의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신고 및 비상대피 ▲전용 소방장비를 활용한 초기대응 ▲소방서와 합동 화재 진압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

에 중점을 뒀다.

한전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배터리를 열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이 소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매우 낮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과 서버실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도 데이터 보호에 안정적이다.

이같은 선제적인 안전조치에도 한전은 흑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튀르키에서 226만弗 수출협약

20개 기업과 농업박람회 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 총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기자재 기업 20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지난해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가기업 확대’와 ‘내실 있는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기업을 10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구매기업 수출 전략 수립, 구매기업 사전 매칭, 기업별 통역 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 현지에서 506건(29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13건,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성과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 기자